

벼 種實의 休眠 關聯 成分과 休眠性 및 穂發芽性과의 關係

金容旭*

Chemical Components Related with Seed Dormancy and Viviparous Germination in Rice

Yong Wook Kim*

ABSTRACT :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relation on seed dormancy and viviparous germination with sucrose content, fatty acid composition and abscisic acid content of rice seed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this experiment.

Sucrose content of brown rice harvested at 20 and 40 days after heading was higher in Japonica and Sare type varieties than in Tongil and Indica type rices.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ucrose content of brown rice and viviparous germination rate of rice varieties tested.

Japonica and Sare type rice varieties showed low proportion of oleic acid and higher proportion of linoleic acid in brown rice harvested at 20 and 40 days after heading than Tongil and Indica rices tested. Viviparous germin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portion oleic acid and positively with that of linoleic acid.

Abscisic acid content in hull of rice seeds stored for 30 days at 25 / 15°C fluctuation temperature condition was decreased more rapidly than 4°C, and Japonica varieties tested showed lower content of abscisic acid in rice hull than Tongil and Indica varieties used.

Key words : Rice, Sucrose, Fatty acid, ABA, Seed dormancy, Viviparous germination

벼의 穗發芽性에 關聯된 要因에 대해서는 品種, 成熟度, 溫度, 圃場의 立地環境, 栽培條件 등이 報告된 바 있으나 穗發芽와 關聯된 벼 品種의 種子 休眠性에 대한 研究는 많이 있으며 더우기 休眠性과 關聯된 生理成分에 관한 研究가 많지 않고 최근 Majumder⁷⁾가 벼의 耐冷性과 關聯한 研究에서 脂肪酸 組成의 차이 및 休眠을 誘發하는 短鎖飽和脂防酸(short-chain saturated fatty acid)에 대해 보고함으로서 이 分野의 研究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포니카型의 品種의 栽面 積이 점차 확대되므로 穗發芽性과 休眠에 대한 培研究의 必要性이 증대될 것으로 思慮된다.

休眠을 誘發하는 요인에는 發育이 不完全하거나 生理的으로 未熟한 胚, 種皮의 機械的 抵抗 또는 不透水性, 그리고 發芽抑制物質 등과 같은 여리가지가 알려져 있다. 벼 種子의 休眠性은 胚를 노출하였을 때는 바로 發芽하므로 胚 休眠에 의하는 真性休眠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그러나 機械

* 東國大學校 農科大學 (Dept. of Agronomy,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94. 12. 6. 接受>

的 不透水性이 休眠을 誘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實驗的 證據가 불충분한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Roberts¹²⁾는 種子를 둘러싸고 있는 組織이 休眠打破을 위한 酸化機作에 필요한 酸素의 評산을 抑制하므로 發芽抑制 效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벼에 있어 껌질에 의하여 胚에 이용될 수 있는 酸素가 排除되는 것을 休眠의 主原因으로 보았다. 또한 穀粒 休眠의 減退는 順의 peroxidase 活性低下에 수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Baun³⁾은 外皮에 있는 peroxidase가 胚와 酸素에 대한 競合을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Takahashi와 Oka¹⁴⁾는 嫌氣的 조건 아래에서 休眠이打破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벼 種子를 싸고 있는 組織에서 內生 發芽抑制 物質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研究者들에 의하여 報告되어 왔다.^{4,6,9,10)} Haysahi⁴⁾는 主 抑制物質은 Abscisic acid라고 하였으나, ABA가 벼에서 休眠機作에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며 그 이유는 ABA는 發芽初期에 일어나는 作用들을抑制하지 못하며 단지 幼根의 출현을抑制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kahashi 등¹⁴⁾과 Mikkelsen 등^{8,9)}은 休眠 種子에서 추출한 物質이 非休眠 種子의 發芽를抑制함을 觀察하였으며, Amen¹⁾은 休眠의 시작, 調節, 終了등이 生長 抑制物質 또는 誘發物質의 均衡에 의하여 調節된다는 原理에 基礎하여 種子休眠에 대한 모델을 提示하였다.

Walker-Simmons¹⁵⁾는 穀類의 穩發芽 문제에 있어 ABA는 休眠種子 胚과 非休眠種子 胚間に 作用性을 달리함을 究明하여 밀 種子에서 胚의 ABA誘起 休眠研究에서 分子生物學的 調節을 위한 研究體系를 개발하였는데 그는 水分을 흡수한 休眠種子의 胚軸에서는 ABA含量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耐熱性인 ABA反應性 蛋白質의 合成이 遲延되는 반면, 非休眠 種子는 흡수하여도 胚軸에서 이러한 反應이 일어나지 않음을 觀察하였다.

不飽和脂肪酸들은 몇가지 指發性 알데하이드와 그들의 Oxoacid 短片들을 만들고 이들 物質은 酸素作用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확인되어 왔다. Linoleic acid(18:2)를 예로들면 여러 단계의 代謝過程을 통하여 短鎖飽和脂肪酸(C6~C9)

을 생성하게 되고 이후 이들 短鎖飽和脂肪酸은 α -또는 β -oxidation 과정을 거쳐 다시 다른 형태의 短鎖飽和脂肪酸을 생성할수 있다. 따라서, 短鎖飽和脂肪酸含量과 그에 따른 登熟기간에 있는 種子의 休眠強度는 일차적으로 C18인 遊離 不飽和脂肪酸의 含量과 그 可用性에支配를 받게 된다. 登熟期間 중에 이들 不飽和脂肪酸의 일부는 酶素作用에 의하여 분해되어 短鎖飽和脂肪酸으로 전환될수 있으며, 실제로 강한 休眠性을 지닌 品種들은 分解에 關與하는 酶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7,13)}.

休眠性이 강한 品種들은 非休眠性 品種들에 비하여 短鎖의 饱和脂肪酸含量이 높게 집적한다. C6-C9의 4가지 短鎖 饱和脂肪酸 중에서 C9(nonanoic acid)이 가장 효과적으로 種子의 休眠性을 부여하는 것이며⁸⁾, 벼種子의 休眠性 誘起物質은 種子 껌질과 種皮에 含有되어있다¹⁾. 귀리種子에서 C5- C11 길이가 다른 脂肪酸이 種子 發芽에 있어 生理的活力을 檢定한 결과 약 2×10^3 M의 C9(nonanoic acid)가 非休眠性 귀리 種子의 發芽率을 50%까지 抑制하였으며 나머지 脂肪酸은 發芽抑制 效果가 없었다. 이들 脂肪酸含量은 植物體內에 存在하며, 抽出되는 植物體의 부위에 따라 다른것으로 밝혀졌고, 穩성하게 生長하고 있는 곳에서보다 自然的으로 休眠하고 있는 組織에서 더 높은 含量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¹⁵⁾.

材料 및 方法

公試材料로는 자포니카 品種으로 오대벼, 소백벼, 화성벼, 사례系栽培品種으로는 자광도, 중원벼 및 인디카型 品種으로는 IR-20등 6개 品種을 가지고 sucrose含量, 脂肪酸組成 및 ABA含量을 分析하고 이들 成分과 休眠性 및 穩發芽性과의 關係를 조사하였다.

1. Sucrose含量과 脂肪酸組成 分析

出穗後 20일과 40일에 穩發芽性 檢定을 위하여採取한 試料중 일부를 40°C 乾燥機에서 48시간 乾燥한 다음, 種實의水分含量을 14%로 補正한 後 sucrose含量과, 脂肪酸組成含量을 分析하였다.

sucrose含量은 玄米機로 製玄한 玄米를 이용하

여 AACC방법으로定量하였다.

脂肪酸組成의分析은 Sodium methoxide를觸媒로하는 methanolysis법으로하였다. 玄米試料를粉碎하여分析當 약 20mg을添加하여 65±5°C의湯曹上에서 2시간동안還流冷却시킨後脂肪酸의에스테르화를행하였다.冷却後1%Phenolphthalein을指示藥으로하여 1N황산으로中화시킨다음分液濾過로hexane총을삼각플라스크에濾過하여無水sodium sulfate를넣어2시간동안방지하여脫水하였다. hexane총을濾過하여濾液을梨形플라스크에취한다음Mantle heater에서hexane을揮發除去하여기름을취하였다.이기름에에틸에테르1ml를넣은後2ml을취하여Gas chromatography에注入하여脂肪酸을分析하였다. Gas chromatography의條件은내경3mm,길이3m의glass column에Chromosorb(A/W)60~80mesh를擔體로하여10%의DEGS를충진하고, column溫度를200°C, Detecter溫度는250°C로, Helium을60ml/min로흐르게하여FID로檢出하였다. 사용기종은GC-6A형Gas chromatography였고, 각脂肪酸의Peak면적은자동Integrator로계산하였다. 脂肪酸組成의分析結果는Palmitic acid(16:0), Oleic acid(18:1), Linoleic acid(18:2)의組成比로표시하였다.

2. Abscisic acid含量의分析

前述한貯藏中種實의休眠性調查를위한試驗圃場에서소백벼, 화성벼, 자광도, 중원벼, IR-20의5品種(系統)을각각出穗後40일에收穫하여상처없이脫穀, 정선하고10일간自然乾燥한다음, 밀봉하여分析할때까지냉장고(4°C)에보관하였다가전체品種의試料가준비되었을때種實의水分含量을14%로補正하여,玄米機로種實에서왕겨를分離해낸다음,이들을ABA含量을分析하는試料로사용하였다. ABA含量은그림1과같은農業技術研究所方法¹¹⁾으로分離定量하였다.

結果 및 考察

1. 種實의 Sucrose含量과發芽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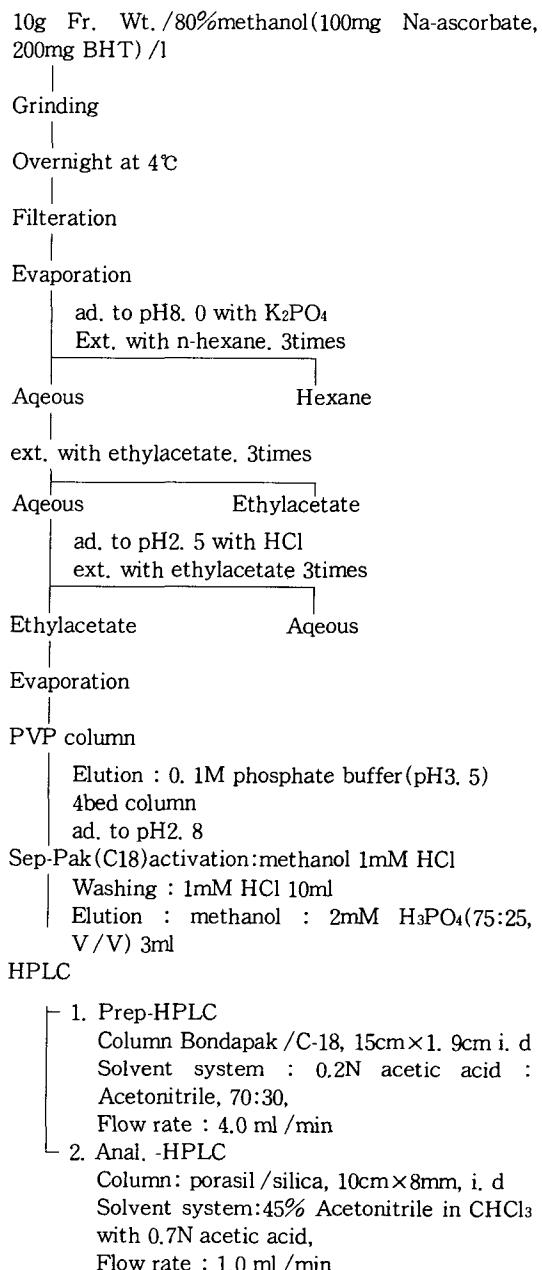


Fig. 1. Procedure for extraction, seperation and analysis for ABA in hull of rice seeds.

表1은오대벼, 화성벼, 자광도, 중원벼, IR-20등6品種에서出穗後20일과40일에收穫한種實을製玄하여玄米가含有한Sucrose의含量을나타낸것이다.玄米의Sucrose含量은出穗後20일과

40일의 두時期 모두 자포니카型品種인 소백벼, 6品種에서 出穗後 20일과 40일에 收穫한 種實을 製玄하여 玄米가 含有한 Sucrose의 含量을 나타낸것이다. 玄米의 Sucrose含量은 出穗後 20일과 40일의 두時期 모두 자포니카型品種인 소백벼, 오대벼, 화성벼등이 샤례系在來品種인 자광도나 統一型인 중원벼 및 인디카型品種인 IR-20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品種別로 두時期間 Sucrose含量의 變化를 보면 자포니카型品種들에서는 5.9~9.9%의 含量增加가 있었고, 자광도는 19.9%, 중원벼는 44.1%, IR-20은 12.4%增加함으로써 登熟이 진전됨에 따라 이들 자포니카型品種들에서 그增加程度가 적은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림 2에서는 出穗後 20일 및 出穗後 40일의 種實(玄米)이 含有한 Sucrose含量과 穗發芽率의關係를 표시하였는데 種實의 Sucrose含量이 높은品種일수록 穗發芽率試驗에서의 穗發芽率이 높은傾向을 보였는데 그 정도는 出穗後 20일에서 좀더 뚜렷하였다.

Table 1. Sucrose content in brown rice

Variety	20DAH (% dry weight)	40DAH (% dry weight)
Sobaekbyeo	2.32	2.55
Odaebyeo	2.86	3.03
Hwaseongbyeo	2.87	3.10
Jakwangdo	2.11	2.53
Jungwonbyeo	1.61	2.32
IR-20	2.10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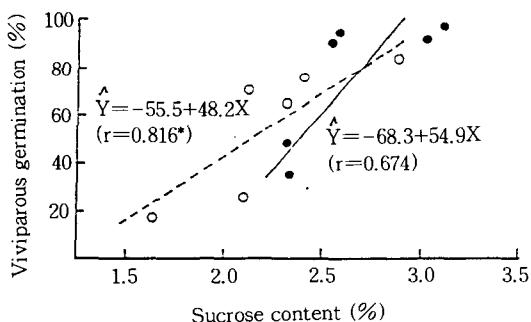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sucrose content and viviparous germination of rice seeds harvested at 20(... o ...) and 40(-●-) days after heading.

즉, 登熟過程의 어느 時點에서 種實의 sucrose含量이 높은品種일수록 相對的으로 穗發芽의 比率이 높을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結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出穗後 20일에서 40일로 登熟이 진전됨에 따른 sucrose含量增加程度로 볼때 穗發芽率이 높은品種일수록 낮은品種에 비하여 登熟 初中期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sucrose含量을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種子의 發芽過程에서는 각종 貯藏成分의 分解와 再合成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에너지는 初期에 胚油에 존재하는 可用性 Glucose나 Maltose가 여러 酶素에 의하여 이동이 용이한 sucrose가形成되어 인접한 胚軸으로 이동, 이용되고, 차츰 胚油내 Amylose나 Amylopectin등의 貯藏澱粉이 Glucose나 Maltose로 分解되고 다시 sucrose로再合成되어 胚軸으로 전류되어 幼苗나 幼根의 生長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本實驗에서 玄米內 Sucrose含量이 높은品種에서 穗發芽率이 높았던 것은 穗發芽過程에서 必要한 可用性 Sucrose 또는 再合成되어 이동되어야 하는 Sucrose의 濃度를 높이는쪽으로作用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試驗過程에서 種子內의 Glucose나 Maltose含量과 아울러 Sucrose分解合成過程 등을追跡分析하고 이와 發芽過程의關係를 정밀히 調查하지 않은 현황에서 發芽以前種子에 含有된 Sucrose含量이 發芽를 促進하는役割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研究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었다.

2. 種子의 脂肪酸組成과 休眠

禾穀類種子의 脂質合成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에 의하여 그含量이 매우 낮으나 호분층이나 배조작에 주로 분포하여 發芽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種子에 있는 지질은 대부분 貯藏形態인 Triglyceride로 존재하고 發芽過程中 여러 종류의 산화작용으로 분해되어 결국 Glycerol과 油脂脂肪酸으로 가수분해되고 遊離脂肪酸은 α - 또는 β -oxidation을 거쳐 에너지원이 되거나 탄수화물의 再合成에 이용된다.

표 2는 出穗後 소백벼(J), 오대벼(J), 화성벼(J), 자광도(샤), 중원벼(IxJ), IR-20(I)品種에

서 각각 出穗後 20일과 收穫한 種實(玄米)이 함유한 지질을 추출하여 Palmitic acid(16:0), Oleic acid(18:1), Linoleic acid(18:2)의 組成比率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세 脂肪酸의 組成比는 전체적으로 보아 出穗後 20일 또는 40일 모두 Palmitic 20일 또는 40일 모두 Palmitic acid가 20% 전후, Oleic acid와 Linoleic acid가 각각 40%를 점하고 있었다. 품종별로 보면 Palmitic acid는 IR-20에서 그 比率이 조금 높을 뿐 다른 品種間에는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統一型인 중원벼와 인디카형인 IR-20이 나머지 品種들과 비교할 때 Oleic acid의 組成比가 相對的으로 높은 반면, Linoleic acid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出穗後 20일에서 40일로 登熟이 진전됨에 따른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 in brown rice

Palmitic Variety	Oleic		Linoleic		DAH	DAH
	20	40	20	40		
%						
Sobaabyeo	23.4	20.3	35.9	38.8	40.8	40.9
Odaabyeo	19.8	19.3	39.3	38.7	41.0	42.1
Hwaseongbyeo	21.5	20.7	36.5	37.1	42.0	42.3
Jakwangdo	—	18.4	—	39.1	—	42.5
Jungwonbyeo	21.6	20.5	41.3	40.6	37.1	38.9
IR-20	22.6	23.6	42.5	40.1	34.9	36.4

* DAH : days after heading

品種別 脂肪酸 組成의 变화를 살펴보면 Palmitic acid의 경우 소백벼로부터 중원벼 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IR-20은 증가 하였고, Oleic acid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원벼와 IR-20은 다른 品種들보다 그 증가정도가 조금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3은 이들 品種에서 出穗後 20일 및 40일에 조사한 種實(玄米)의 Oleic acid 및 Linoleic acid의 組成比와 穗發芽率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두 시기모두에서 穗發芽率은 Oleic acid의 組成比와 부의 相關이 있었고, Linoleic acid의 組成比와는 정의 相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jumnder⁷⁾ 등은 벼의 耐冷性과 種子내 함유된 脂肪酸의 종류와 組成比의 關係研究에서 種子의 發芽는 Oleic acid, Linoleic acid와 같은 不飽和脂肪酸과 이들이 分解되어 생성하는 短鎖飽和脂肪酸(Short-chain saturated fatty acids)의 균형에 영향 받는다고 하면서, 특히 nonanoic acid(C9)가 種子의 休眠을 유도하는 物質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休眠性이 강한 品種은 休眠性이 약한 品種보다 種子의 內生 nonanoic acid의 농도가 높아 외부에서 nonanoic acid를 처리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를 처리하여도 休眠이 誘起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種子의 休眠性에 차이가 있는 8개의 벼品種 種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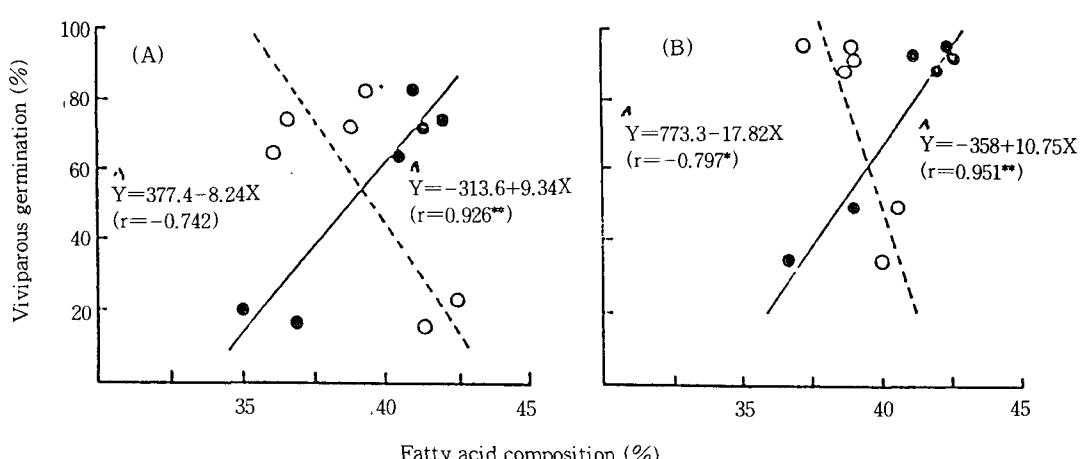


Fig. 3. Relationship between viviparous germination and unsaturated fatty acids, Oleic acid(-○-) and Linoleic acid(-●-), in rice seeds harvested at 20(-A-) and 40(-B-) days after heading.

脂肪酸組成을 조사한 결과, Oleic acid는 休眠性이 강한 品種일수록, Linoleic acid는 休眠性이 약한 品種일수록 각각 그 組成比가 높은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시험에서의 결과와 그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

3. 種子의 Abscisic acid(ABA)含量과 發芽率

表 3은 出穗後 40일에 收穫한 種子를 曝夜 25/15°C와 4°C, RH 40%의 두 조건에서 30일간 貯藏한 다음, 製玄하면서 왕겨를 분리하여 그속에 함유된 ABA含量을 分析定量한 결과이다. 4°C, RH 40%에 貯藏하였을 때는 실내조건과 유사한 25/25°C에 貯藏하였을 때보다 모든 品種에 걸쳐

Table 3. ABA content in hull of rice seeds at 30 days after storage under 25/15 (day/night) °C and 4°C + RH 40%

Variety	Varietal group	Storage condition	
		4°C	25/15°C
Odaebyeo	Japonica	1.36	0.80
Hwaseongbyeo	Japonica	1.31	0.76
Jakwangdo Sare	Sare	1.77	1.42
Jungwonbyeo	Tongi	2.70	1.20
IR-20	Indica	3.03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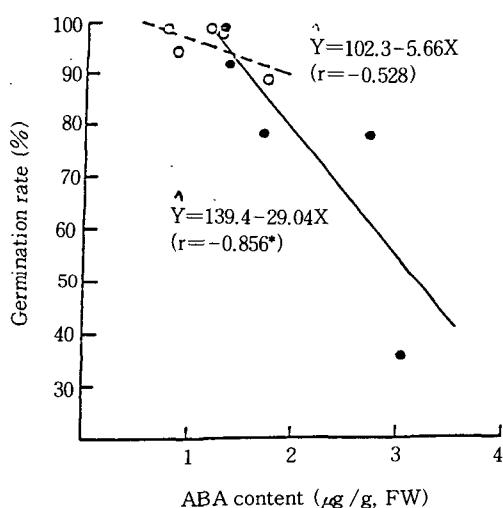


Fig. 4. Relationship between ABA content in hull and germination of rice seeds harvested at 20(-○-) and 40(-●-) days after heading.

ABA含量이 높았으며, 品種別로 보면 統一型인 중원벼나 인디카型인 IR-20에서 그含量이 높았다. 또한 25/15°C에 貯藏하였을 때 ABA含量의 감소도 인디카型이나 統一型 品種보다 자포니카型品種들에서 그 정도가 커었다. 이와같은 品種別 ABA含量의 차이와 發芽率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다. 25/15°C 및 4°C 조건에서 모두 ABA含量이 낮았던 자포니카型이나 샤례型品種들은 높은 發芽率을 보인 반면, 相對的으로 ABA含量이 높은 統一型 品種이나 인디카型 品種들은 發芽率이 떨어지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摘要

本實驗은 種實의 休眠性 關聯成分과 休眠性 및 穩發芽性과의 關係를 究明하고자 遂行되었으며 實驗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出穗後 20일과 40일에 收穫한 種實의 玄米 중 Sucrose含量은 모두 자포니카型 品種이 샤례型, 統一型 및 인디카型 品種들보다 높았고, 자포니카型 品種에서는 모두 時期間에 그含量의 변이도 작았다. 出穗後 20일 및 40일의 玄米 Sucrose의含量과 穩發芽率은 정의相關이 확정되었다.
- 出穗後 20일 및 40일에 收穫한 種實의 玄米에 함유한 脂肪酸組成은 자포니카型이나 샤례型品種들 보다 統一型 및 인디카型 品種들에서 Oleic acid의 比率이 높은 반면 Linoleic acid의 比率이 낮았으며, 種實의 穩發芽性은 Oleic acid의組成比와 부의 상관, 그리고 Linoleic acid比率과는 정의相關關係가 있었다.
- 出穗後 40일에 收穫한 種實의 曝夜 25/15°C 변온 조건과 4°C의 저온 조건에 각각 30일간 貯藏한 後 왕겨에 함유된 ABA含量을 조사한 결과, 25/15°C에 貯藏한 것이 4°C에 貯藏한 것보다 그含量이 낮았으며, 穩發芽性이 높은 자포니카型 品種들이 穩發芽性이 낮은 統一型이나 인디카型 品種들 보다 ABA含量이 크게 낮았다.

引用文獻

1. Amen, R. D. 1968. A model of seed dormancy. *Botanical Review* 34(1):1-31.
2. Baun, L. C. 1972. Biochemical studies on Dormancy of the rice grain. M. S. thesis, Colledge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Philippines, Los Banos. 64p.
3. Hayashi, M., and Y. Hidaka. 1979. Studies on dormancy and germination of rice seeds. Temperature treatment effects on rice seed dormancy and hull tissue degradation in rice seed during the ripening period and after harvest. *Bull. Fac. Agr., Kagoshima Univ.* 29:21-32.
4. Hayashi, M. and M Himeno. 1973. Studies on the dormancy and germination of rice seeds. II. Relation between seed dormancy and growth substances in rice.
5. Karivartha Raju, T.V., and Sakharam Rao. 1972. Possible role of seed coat characteristics on dormancy in rice. *Madras Agric. J.* 59(11 / 12):647-649.
6. 김석현, 최창희. 1993. 收穫期의 降雨가 맥주보리 發芽性에 미치는 影響. *韓作誌* 38(別策 1):40-41.
7. Majumder, M. K. 1989 Implication of fatty acids and seed dormancy in a new screening procedure for cold tolerance in rice. *Crop Sci.* 29:1298-1304.
8. Mikkelsen, D. S. 1967. Germination inhibitors as possible factor in rice dormancy. *Int. Rice Comm. Newslett.* Sp. Issue, p. 132-145.
9. Mikkelsen, D. S. and I. T. Glazewski. 1962. Occurrence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endogeneous growth substances in hulls of *Oriza sativa*. *Proc. Rice Technical Working Group*, Huston, Texas.
10. Misro, B. and P. K. Misra. 1969. Certain considerations on seed dormancy in rice *Oriza sativa*. 6(2):18-22.
11. 農業技術研究所. 1991. 植物 호르몬 分析. pp. 112-140.
12. Roberts, E. H. 1962. Dormancy of rice seed. III.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moisture, anf gaseous envirnment. *J. Exptl. Bot.* 13:75-94.
13. Slack, C. R., P. G. Roughan, and J. Terpstra. 1976. Some properties of a microsomal oleate desaturase from leaves. *Biochem. J.* 155:71-80.
14. Takahashi, N., and H. I. Oka. 1959. Factorial analysis of regulating Mechanism on germination velocity in rice seed. *Bull. Inst. Agric. Res. Tohoku U.* 10:207-212.
15. Walker-Simmons, M. K. 1990. Preharvest sprouting in cereals. *Agronomy News*. 1990(Feb):8.